

전남 17개 시·군 응급의료 취약하다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전남도, 도민·의료현장에 집중 홍보

전남도내 22대 시·군 가운데 무려 17곳이 응급의료 취약지역로 지정돼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지역에 포함된다.

17개 시·군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등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부족 지역이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 가능하다. 또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의 판단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하도록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이 조정됐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범위에 전국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

구도 추가된다. 전남은 17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돼 비대면 진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 이력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관리 및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고,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여건이 열악한 전남 17개 응급의료취약지역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취약지역 도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 비대면진료가 정착되도록 도민들과 의료현장에 적극 안내하는 등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반도 평화, 기적처럼 다가올 그날을 위해 쉽 없이 노력해야”

DJ 노벨평화상 23주년 기념식 반기문·김진표·문희상 등 참석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DJ의 노벨평화상 수상 2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4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쓴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반추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정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 인권을 위한 헌신과 국민 통합”이라며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오늘의 현실은 갈등과 대립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야 할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 정치는 작은 이익을 위해 달팽이 뿔 위에서 밤낮으로 싸우는 외각지쟁(蝸角之爭)의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노벨평화상 수상 23주년 기념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솔선수범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김 전 대통령이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 악화한 남북 관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이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던 한반도 평화가 지금 잠시 멈춰 서는 듯 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떠올린다”며 “한반도 평화가 어느 날 기적처럼 다가올 그날을 위해 지금 쉽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천일염·수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다 있다”

전남도, 서울 코엑스에서 16일까지 ‘설맛이 명절선물전’

전남도가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년 설맛이 명절선물전'에 참여해 천일염과 전남 주요 수산물을 시식·판매하는 판촉 활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에는 수산물과 천일염 등 26개 가공업체가 참여해 명절 시즌 대량으로 소비되는 천일염 선물 세트,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손살

전복, 전복빵, 김 가공품, 어묵 선물 세트 등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수산물을 판매한다. 특히 천일염과 수산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세트가 직접 요리한 전복, 어묵 요리 시식 코너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굴비, 젓갈, 전복빵 등 다양한 제품들도 시식·판매해 전국의 기업·백화점·온라

인소포몰 관계자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옛 전남 어묵 산업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그 전통성을 살리면서 특색있는 제품 개발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목표에는 최첨단 해협(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시설을 갖춘 어묵 제조 공장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소비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수산가공식품을 개발, 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전남 올해의 기자상' 대상

'토호세력 이권 카르텔 전 광주시장 아들 땅 특혜 의혹' 보도

광주일보 박진표 정치부 부장, 정병호 사회부 기자, 최승열 광산주재 부국장이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맹대환) '2023 올해의 기자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4일 심사를 통해 박진표 부장 등 3명의 기자가 쓴 '토호세력 이권 카르텔 전 광주시장 아들 땅 특혜 의혹'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 문화재단 별관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일보는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광주소촌농공단지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기사화했다. 특히 광주시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 등을 확인·보도했으며, 심의위원들의 회의록까지 단독으로 확보해 기사화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진표 부장 정병호 기자 최승열 부국장

광주일보는 아울러 후속 보도를 통해 지역 토호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집중 부각했다.

감사원은 광주일보 보도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광주시와 광산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조사관 4명을 파견해 정식 감사에 나섰으며, 부적절한 특혜 행정 등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층간소음 불만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처벌” 첫 판결 새벽 시간 31차례 소음...“불안감·공포심 일으키기 충분”

위층에 사는 주민의 층간소음에 대해 사회적 통념 이상의 고의성이 강한 혐의를 한 공동주택 거주자가 스톱킹으로 처벌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톱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톱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한 빌라의 세입자로 살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차례에 걸쳐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향을 지르기도 했다.

A씨의 행위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씨는 빌라 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스톱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내년 3차례 금리인하 전망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면서 작년 3월부터 지속해서 강화해온 추가적인 긴축 정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했고, 그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악화하지 않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65~0.90%포인트 낮출 4.6%(중간값)로 예상했다. 이를 두고 연준이 내년에 세차례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인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 인상했고, 긴축정책 시작 당시 0.00~0.25%였던 금리는 현재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5~5.50%까지 올랐다. 연준의 이번 동결 결정으로 한국(3.50%)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2.00%포인트다. /연합뉴스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면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업 오피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